평화의 어머니, 케테 콜비츠 북서울에 오다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의 초판에는 단 한 명의 여성작가도 등장하지 않는다.
책이 호평을 받자 개정판에 한 명의 여성 작가가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그 작가가 바로 케테 콜비츠다.
민중 미술의 어머니라 평가받는 케테 콜비츠의 전시를 만나보자.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4월 19일까지. 관람료 무료.

글_권필 기자

피에타.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먼저 떠오른다. 한 여성이 아들로 보이는 한 남자의 주검을 안고 있는 강렬한 인상의 포스터도 연달아 떠오른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이라는 뜻이다. 예술사에서 이 단어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시신을 비통하게 껴안고 있는 조각 작품을 통칭하기도 한다. 가장 유명한 '피에타 상(像)'은 바티칸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피에타 상을 꼽는다면? 독일의 판화가이자 조각가인 케테 콜비츠의 작품일 것이다. 피에타는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케테 콜비츠의 작품은 그렇지 않다. 이 상에서 마리아는 콜비츠 자신이고 주검은 전쟁에서 전사한 아들이다. 아들의 몸을 조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상상하기 힘들다. 그 눈물은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모든 어머니들의 아픔이기도 했다. 이처럼 그녀의 작품 속에는 불안한 사회와 전쟁이라는 비극이 낳은 민중들의 아픔과 상처들이 담겨 있다.

〈피에타 Pieta〉
케테 콜비츠, 브론즈, 38×28.5×39cm,
1937/38, ©Okinawa Sakima Art Museum
전시회의 유일한 조각 작품. 자신의 무릎에 아들의 주검을 올려놓고 슬퍼하는 피에타 상의 어머니는 케테 콜비츠 자신이다.

민중 미술의 어머니

독일에서 태어난 케테 콜비츠(1867~1945)는 자유롭고 혁신적인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외할아버지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 신학자였고, 아버지는 법관이었지만 당시 프로이센 정부(18세기 독일을 이끌던 왕국. 1차 세계대전 패전과 함께 사라졌다)의 억압과 부패를 견디지 못하고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나 미장이가 된 인물이다. 케테 콜비츠 역시 이런 가풍을 이어받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았다. 미술을 공부한 그녀였지만 의사이자 사회주의자인 남편과 자선병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

그녀를 예술가로 일으켜 세운 것은 하우프트만의 연극 〈직조공〉이라는 작품이었다. 독일 슐레지엔 지방에서 착취와 수탈에 시달리던 직조공들이 기계를 파괴하고 자본가의 집을 습격하며 반란을 일으킨 실제 사건이 배경이다. 케테 콜비츠는 이 연극에 영감을 얻어 일련의 연작 판화인 〈직조공의 봉기〉 작업에 매달렸다. 직조공들과 그 가족들의 비참한 삶을 판화에 담아내기로 한 것이다. 작업은 무려 4년이나 계속되었다. 이 연작판화는 대단한 호응을 불러 일으켰고 베를린예술전람회에서 금상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당시 황제였던 빌헬름 2세의 거부로 수상이 취소됐다. 당시 지배자들은 직조공들을 부리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가혹한 착취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그림이 좋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전투 After the Battle〉
1907, 41.2×52.9cm, 에칭, 인쇄,
©Okinawa Sakima Art Museum
〈직조공들〉 이후 발표된 〈농민전쟁〉의 연작 시리즈 중 하나다.
한 여인이 거칠고 뻣뻣한 손으로 시체의 아래턱을 치켜 올리며 어둠 속에서 아들의 시체를 찾고 있다. 고요한 어조로 참담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당시 독일은 정치, 사회적으로 큰 변동을 겪고 있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앞서 말한 직조공들처럼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층이 생겼고 노동운동이 시작됐다. 한편으로는 역사상 최초로 통일국가를 이루며 유럽의 강대국으로 떠오른 독일이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탐욕을 보이는 시기이기도 했다. 케테 콜비츠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조공들〉 외에 〈농민전쟁〉 등의 시리즈로 민중미술을 주도해나가며 산업화 이면의 소외된 사람들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던 중 1차 세계대전을 맞는다. 전쟁은 전 세계에게, 그리고 그녀에게도 비극 그 자체였다. 특히 징집되어 나갔던 아들을 잃는 큰 불행을 겪으며 그녀의 작품 세계는 더욱 심오해지기 시작했다. 〈피에타〉와 같이 아들을 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는 작품을 만들어냈으며 반전을 주제

〈지원병들 The Volunteers〉
1921~1923, 35.0×49.0cm, 목판, ©Okinawa Sakima Art Museum
미친 듯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 속의 젊은이들을 역동적으로 담아냈다. 석판이 아닌 거친 표현이 특징인 목판화로 제작되어 더 큰 감동을 전한다.

〈협의 Conspiracy〉
1898, 27.2×16.7cm, 석판, ©Okinawa Sakima Art Museum
봉기에 앞서 직조공들의 회의 과정을 담은 작품. 식당 테이블에 둘러앉은 4명의 직공들은 어둑한 곳에서 반란을 협의하고 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강한 흑백 대조에 의한 인물의 표현은 극적 효과를 보인다.

〈어머니들 The Mothers〉
1922~1923, 34.0×40.0cm, 목판, ©Okinawa Sakima Art Museum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외부를 응시하는 어머니들. 그들이 감싸고 있는 것은 잔뜩 겁에 질린 아이들이다. 〈전쟁〉 역작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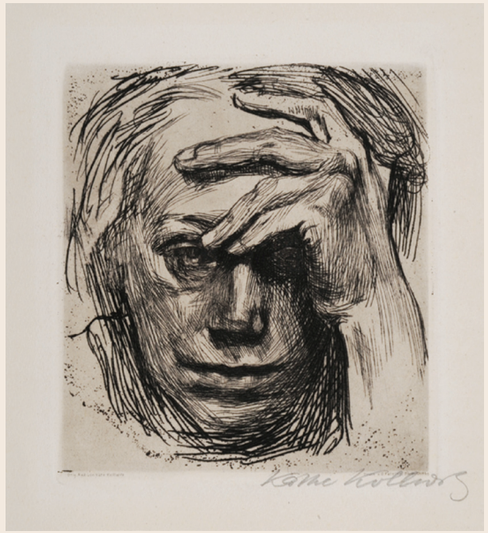
로 한 〈전쟁〉과 같은 시리즈를 선보였다.

1936년 나치는 케테 콜비츠에게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예술가'라는 이유로 전시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현실을 알리는 판화 작업을 주저하지 않았다.

작품의 제목만 들어도 큰 고통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부랑자의 죽음〉, 〈죽음이 덤벼들다〉, 〈소녀를 무릎에 앉힌 죽음〉 등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소재로 한 작업을 계속 했다.

그녀 개인적인 비극은 한 차례 더 일어난다. 아들의 이름을 물려준 큰 손자 페터를 2차 세계대전에서 또 잃게 된 것. 한창 죽음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였다.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며 늘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녀는 역설적으로 죽음을 판화에 담으며 그러한 고통마저 예술로 극복하려고 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며칠 전 피난 생활을 하다 죽음을 맞이했다.



〈이마에 손을 얹은 자화상 Self-portrait with Hand on Forehead〉
1910, 15.4×13.7cm, 에칭, ©Okinawa Sakima Art Museum
〈죽음〉 시리즈 중 그녀의 자화상. 그녀의 자화상은 꼭 얼굴의 한 면에 그림자가 져 있다. 자신이 속한 시대 상황을 침착하게 마주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주의 깊게 표현했다.

〈죽음과 여인 Death and Woman〉 1910, 44.7×44.6cm, 에칭, 인쇄, ©Okinawa Sakima Art Museum
1910년 이후 콜비츠의 작품은 '죽음' '여인' '아이'와 같은 주제가 지배적이었다. 꺾여 있는 한 사람의 형상 뒤로 죽음을 품은 해골이 보인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달라 드는 어린아이가 만들어내는 구도가 인상적이다.

"내가 죽음을 향해 가도록 해주세요. 이제 내 시간은 끝났어요."라는 유언을 남긴 채,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 곁으로 떠났다.

북서울에 온 케테 콜비츠

하계역에서 내려 북서울미술관으로 향하는 거리에는 〈케테 콜비츠 展〉을 알리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현수막에는 '북서울에 온 케테 콜비츠'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북서울시립미술관과 함께 이번 전시를 주최한 평화박물관은 대표적 서민주거지역인 북서울이란 곳이 케테 콜비츠의 예술정신에 잘 부합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했다.

어디 북서울 뿐이랴. 세월호 참사의 고통이 아직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이 암울한 시절에,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그녀의 작품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다. Eu